



도시 중심에 위치한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타워, 힌두교의 성지 바투케 이브, 구름위의 복합레저시설 겐팅하이랜드,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의 중심가 부킷빈탕 등 수많은 관광지로 유명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여행길이 막힌 지도 1년 남짓 지났고 있다. 식문화는 서로 여행을 오가면서 인적 교류가 활발해야 그 인기가 더해질 것 같은데, K-Food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진 않을까?

“아니다!” 오히려 그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20년 기준 말레이시아로의 한국 농식품 수출은 사상 최초로 1억 4천만불을 돌파하여 전년에 비하여 약 23% 상승했다. 올해에 들어서는 2월 기준 전년과 비교하여 59%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식품은 말레이시아의 소비 중심지인 클랑 밸리지역에 위치한 현지 대형유통업체인 빌리 지그로서, 이온, 자야그로서 등을 비롯하여 몽키아라와 같은 한인거주지역의 한국슈퍼를 중심으로 김치, 고추장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그 와 더불어 한국식문화의 인기도 나날이 커지고 있어, 교촌치킨, 팔색삼겹살과 같은 프랜차이즈 점포의 매출과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37개의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가 6:3:1의 비율 정도이어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존재한다.

그러한 만큼 각자의 종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식문화에 대한 제약이 제각기이다. 이슬람교인(무슬림)은 규율상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 쇠고기, 닭고기와 같은 타 육류도 할랄 인증을 받은 것만 먹을 수 있다. 심지어 돼지와는 중독되지 않는 유통방법으로 할랄전용 매대에서 판매되는 것만을 섭취한다. 힌두교인과 일부 중국계는 신앙에 따라 쇠고기를 먹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말레이시아의 구성원들은 결코 타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간다. 슈페리는 할랄과 Non할랄코너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돈육과 술을 먹지 못하는 무슬림과의 식사 시에는 JAKIM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레스토랑을 찾아 함께 한다. 대부분의 건물에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버거킹, 맥도널드와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100% 할랄인증 쇠고기를 사용한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교촌치킨에는 주말이면 수많은 인파로 붐빈다. 손님 대부분이 회잡을 두른 무슬림이다. 여기서 2가지의 의문점이 발생한다. 판매되는 치킨은 한국 닭인가? 그들도 치맥(치킨+맥주)을 할까? 교촌치킨에서 판매하는 치킨은 말레이 현지 할랄 도매장에서 닭을 납품받는다. 다만, 치킨의 양념과 같은 모든 레시피는 한국의 것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술은 절대 팔지 않는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 받은 치킨 가게에서는 절대로 맥주를 마실 수 없다. 대신 한국김치와 그 김치로 만든 김치볶음밥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팔색삼겹살이라는 프랜차이즈도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의 손님 대부분이 중국계이다. 여기서는 한국산 소주와 음표, 김치 등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로 인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식품은 여러 방법으로 사랑받고 있다. 무엇보다 현지 문화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인기의 비결로 보인다. 절묘하게 혼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기면서 여천처럼 자유롭게 세계 각국을 다닐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본다.



페트로나스타워



팔색삼겹살, 말레이시아 Shopee 관계자, 前A 말레이시아 사무소장, aT AFLO 김유리 단원



한식요리교실

※ 글: aT 조성덕 차장 (前 말레이시아 사무소장 / 現 수출전략팀 수출기획부)